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7. 마니교와 대승비불설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치열한 이원론을 바탕으로 구원을 모색했던 마니교는 소멸되어버린 고대 종교다. 마니케우스(215~276)에 의해 창시된 마니교는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를 모태로 성립된 종교로서 서방에서는 기독교, 동방에서는 불교의 교리와 제도를 차용하여 10세기 이후까지 존속했다.

유명한 교부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354~430)도 이 마니교의 신자였을 정도로 오랫동안 기독교의 경쟁상대였으나 4, 5세기경 기독교 측의 냉혹한 박해로 소멸되고 말았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를 통해 전해진 동방의 마니교는, -불교의 옷을 입고 불교를 가장하긴 했지만- 중세말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

불교의 옷을 입은 이 고대종교의 전모는 1900년 돈황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해서 밝혀진다. 즉 영국의 스타인이 수집한 문서 2659a번 〈마니교하부찬(摩尼敎下部讚)〉과 3969번 〈마니광불교법의략(摩尼光佛敎法儀略)〉 등이 불교화된 마니교의 실

마니불계통 佛名 등 불교화된 흔적 '곳곳'

체를 잘 보여준다. 특히 731년 당 현종의 명으로 마니교의 경전, 교리, 사원과 출가제도에 관해서 기록된 〈마니광불교법의략〉은 만약 사전지식이 없는 독자들이 읽으면 마치 불교경전을 읽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완전히 불교화되어 있다. 마니교도들은 이미 토착화된 중국불교의 옷을 빌려 입고 자신들의 종교를 포교했던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옷을 입고 불교를 가장한 마니교는 마침내 불교교단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통전(通典)〉 732년 7월에 조에 실린 한 조칙에서는 "본래 사견(邪見)인 마니교가 불교를 사칭하여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있으므로 마땅히 엄하게 금단시켜야 한다. 만약 서쪽에서 온 외국인들이 이미 자신들의 종교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죄를 묻지 말라"고 적고 있다. 이후 마니교는 755~763년간 폭발한 당대 중국의 대반란, 안사(安史)의 난(亂) 이후 위구루 군대의 힘을 빌려 난을 진압한 당 왕실의 지지에 힘입어 중국 각지에 마니교의 사원, 즉 마니사가 세워진다. 그러나 당 무종에 의한 회창연간(842~845)의 불교탄압 때 마니교 또한 외래종교라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소멸되기에 이른다.

불교화된 마니교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실이 두 가지 있다. 한 가지는 마니교 문서들이 현재 불교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수대장경〉의 제54권 외교부(外敎部)에 네스토리안 기독교의 문서들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동양의 정신문화에서 불교가 아우르는 영역은 큰 것임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또 한 가지는 불교화된 마니교의 흔적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현재 지역과 절에 따라서는 〈천수경〉의 "환희장마니보적불, 제보당마니승광불…."과 같은 일련의 마니불계통의 불명은 독송하지 않는다. 옛부터 스님들은 이미 마니불 계통의 불명이 바로 불교화된 마니교의 흔적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마니교의 전적은 대부분 산실되어 버렸지만 1945년 이집트에서 마니 자신이 쓴 글과 마니교 성전이 발견되었다. 마니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23세경 인도를 여행하며 가르침을 설했고 후에 페르시아로 귀환했다고 한다. 그는 실제로 불교를 알고 있었으며 붓다, 예수, 조로아스터를 자신의 선구자로 여겼다. 마니는 대승비불설(大乘非佛說)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마니는 기독교도를 비난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도를 비난한다. 즉 "불제자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고 있지 않다. 스승으로부터 들은 가르침의 일부를 문자로 기록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마니는 자신의 생존 기간 동안 자신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후대의 사람들이 가르침의 일부만을 전하여 제멋대로 해석할 것을 염려하여 유서를 쓰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마니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도에는 대승불교가 흥기하여 대승불교도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석존의 진정한 가르침이며 소승불교는 석존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저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소승불교도들은 대승불교를 비불설(非佛說)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마니는 인도에서 일어난 대승비불설이라는 논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록했던 것이다.

▩ 경학회 회주

열린 마음의 불교 토론문화

참불자의 길 대중공사(大衆公事)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야 할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그렇고, 가족간의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또 친구들 사이의 의견을 조정할 때에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다.

오히려 섣불리 자기 주장에만 집착해 상대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 또 함부로 말하거나 아예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기도 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에서 행하는 방법이 바로 '대중공사(大衆公事)'다.

대중공사는 자신의 허물을 대중 앞에 스스로 드러내 고백하는 참회의 절차인 포살(布薩)과 대중 앞에서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어 지적하는 자자(自恣)를 그 근원으로 한다.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름답고 숭고한 의식인 포살과 자자를 통해 수행자들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승가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다. 이같은 자자와 포살의 정신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것이 바로 대중공사다. 포살의식이 우기, 즉 안거를 제외한 기간동안에 행해졌다면, 자자의식은 우기, 즉 안거와 때를 맞춰 행해졌다. 반면 대중공사는 이같은 시기에 상관없이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 언제든지 대중의 뜻을 모아 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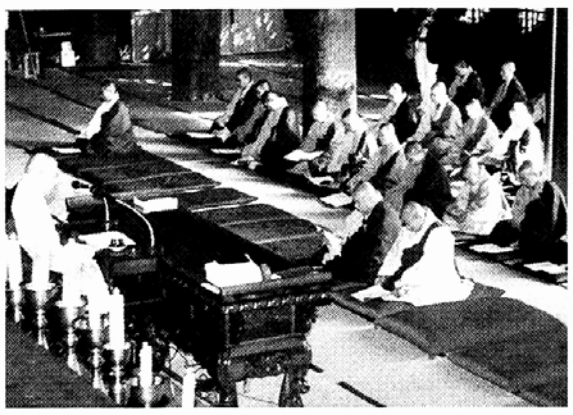
모든 대중이 큰 방에 모여 산중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대중공사는 불교적 토론 문화의 한 형태라 설명할 수 있다. 모든 대중이 한데 모인 까닭에 서로에 대한 예의가 살아있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거쳐, 명확한 논리로 전개되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합의를 도출하기에 이른다.

이같은 대중공사는 부처님이 중생에게 행했던 교화방법에 근거한다. 억지나 강요없이 비유와 설득의 가르침을 통해 중생들에게 중도의 길을 설파했던 부처님의 화법이 오늘에 응용되어 정착된 것이다.

대중공사의 전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원의 교육방법으로 사용돼 왔다. 강원에서 사교 이상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경율론 삼장의 해석과

布薩-허물 스스로 고백 自恣-상대 허물 지적

의미를 정립해 내가는 과정인 논강에서 주입식이 아닌, 토론을 통한 이해와 연구의 방법을 취한 것이다. 오늘의 대학원 수업과 비슷한 형태라 이해할 수 있는데, 스승과 제자, 도반과 도반 사이에 때로 심각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지만 이 모두가 부처님의 정법을 올곧게 이어나가려는 토론과정이다.



◇대중공사는 불교적 토론 문화의 한 형태로서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고, 대중의 공의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방편이다.

또한 본사의 주지 선출에서도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 주지를 선출하는 대중공사가 행해지기도 한다. 대부분 산중 총회에서 경선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몇몇 사찰에서 이 대중공사의 전통을 이어 불교적 합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사찰의 갖가지 문제들을 결정할 때 사중 모두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으로 대중공사가 행해진다.

특히 공개재정을 실천하는 사찰의 신도회나 운영회에서 대중공사를 통해 절 살림을 공동으로 꾸려나가고 있으며, 산사 수련회나 불교단체등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대중공사를 통해 여법한 결론을 끌어낸다.

이은자 기자

'서장' 통한 선 공부 ㉞ 종직각(宗直閣)에 대한 답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현사(玄沙)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제한하거나 제약할 수가 없다.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으니, 꾸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진실로 고요하지만, 움직이고 사용하고 말하고 웃고 함에 모든 곳에서 밝고 분명하여 조금의 모자람도 없다. 요즈음 사람들은 이 속의 도리(道理)를 깨닫지 못하고, 망녕되게 스스로 사물과 관계하고 번뇌와 관계하여 곳곳마다 오염되고 집착하며 만나는 물건마다에 묶여 버린다. 깨달음을 내버려 두니 티끌 경계에 어지럽게 뒤섞이며 이름과 모양이 진실되지 못하다. 이에 곧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거두어 들이며 색(色)을 끌어 잡아서 공(空)으로 돌리려 한다. 눈을 감아서 눈동자를 감추고는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 이리 저리 부수어 제거하며, 약간의 생각이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즉시 막아서 눌러버린다. 이와 같은 견해는 곧 공무(空無)에 떨어진 외도이며 혼백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같다. 캄캄하고 막막하여 느낌도 없고, 알음알이도 없는 것이 마치 귀를 막고 방울을 흔드는 것과 같아서 헛되이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다.' 당신이 보내온 편지에 하는 말이 모두 현사 스님이 꾸짖고 있는 바로 그 병이며, 묵조(默照)의 삿된 스승이 사람을 파묻는 구덩이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보통 마음 공부라고 하면 망상(妄想)을 놓는 것이라고 여긴다. 망상을 놓으면 진성(眞性)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신을 집중하고 긴장하여 한 순간이라도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그 생각을 눌러버리는 일에 몰두한다. 생각이란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는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나게 마련이니,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한 순간도 쉼이 없다. 그리하여 항상 캄캄하고 막막하여 아무 알음알이나 느낌도 없는 것을 공부가 잘 된다고 여기고, 이러한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그러나 색(色)을 버리고 공(空)으로 돌아간다는 이러한 행위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는 이른바 취사간택(取捨揀擇)일 뿐이고, 공부라고는 할 수 없다. 버리고 취하는 일은 이미 사량분별의 일이기 때문이다.

바른 이치로 말하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므로, 색을 버리면 동시에 공도 버려진다. 따라서 색을 버리고 공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망상(妄想)을 버리고 진성(眞性)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삿됨을 버리고 바름을 드러낼 수도 없다. 실제로는 색을 통하여 공이 드러나니 색 속에서 공을 보며, 망상을 통하여 진성이 드러나니 망상 속에서 진성을 보며, 삿됨을 통하여 바름이 드러나니 삿됨 속에서 바름을 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색이니 공이니 망상이니 진성이니 삿됨이니 바름이니 하고 분별할 줄 아는 바로 '그것'이 색도 만들고 공도 만들고 망상도 만들고 진성도 만들고 삿됨도 만들고 바름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색도 '그것'의 작용이고, 공도 '그것'의 작용이고 망상도 '그것'의 작용이고, 진성도 '그것'의 작용이고, 삿됨도 '그것'의 작용이고 바름도 '그것'의 작용이다.

나아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걷고 앉고 눕고 잠자고 깨어 있는 것이 모두 '그것'의 작용이며, 바람이 불고 햇볕이 나고 비가 오고 나무가 자라고 물이 흐르고 자동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나는 것이 모두 '그것'의 작용이다.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의 작용인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버린다는 생각도 '그것'의 작용이고, 취한다는 생각도 '그것'의 작용이며, 버리는 행위도 '그것'의 작용이고, 취하는 행위도 '그것'의 작용이다. 이 모든 작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작용으로 드러나는 삼라만상의 세계를 '그것'의 작용이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바로 망상(妄想)이 되고 망어(妄語)가 되니 지극히 조심해야 할 일이다.

다만 '그것'이면 다만 '그것'일 뿐, 생각으로나 말로 확인하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 생각과 말로 확인하려고 하면 바로 둘로 나누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http://www.mindfree.net/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20명 ■야간20명 ■통신30명	· 고등학교및 수학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30세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가능
	4년	■통신50명		
개호복지사과	2년	■통신5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야간10명		

2.학교연혁

1987.7.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 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 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12명 취득
94. 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본교체결
95. 11 본교학생 14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6. 11 본교학생 186명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
99.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2000. 2 제9회 졸업생 배출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95% 자격취득
2001. 2 제10회 졸업생 배출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 과정 입학가능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1년 11월 1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 02)511-2026~8
FAX.511-1080
· 일본동경분교 : 03-3200-1013
· 부산분교 : (051)322-32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 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1년 10월 30일까지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 국립한의과 대학◈
한의사 과정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9월 입학)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건강진단서 1통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여권용사진 5매
중의외과	5년	
중약학과	5년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5개, 제약공장3개, 교육병원 12개,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군입대 연기가능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71 팩스 : 25-6798168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02)511-2026~8

남경중의약대학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 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주요 연수 내용
당뇨병, 중풍, 비만, 좌골신경통 및 관절치료 등의 침치료, 맥진법, 기공 등
■기 간 : 11월 9일~15일(6박7일)
■연수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 (高級課程 結業 證明書)
■인 원 : 각 10명 선착순
■출발일 : 2001년11월19일 예정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남경중의약대학